

## 강릉 ~ 속초간 신설고속도로 주변 전통주거건축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a Characteristic to have been Reflected on Classic Dwelling Construction around Gang-Reung, a new Expressway between Sok-cho

이근형\* · 정재국\*\*

Lee, Kun-Hyeng · Jung, Jae-han

#### Abstract

This expressway passing the address region that is sightseeing of our country must consider in what do a convenience sincerity chase and a cultural side view. A region with development possibility and a spinoff about a cultural element must hold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to a sightseeing resort. This route that passed Gang-Reung, Yang-Yang, Sok-cho was connecting an obstetrics acid, and accessibility along investigation was a hard place. In this region, a classic house is lying scattered, and JeonSaCheong inviting an ancestral mortuary tablet is appearing. The private house was divided during a classic house by using typical Gangwon to the room where a floor was introduced by house with several wings Korean floor heater center form. A characteristic form a characteristic change was appearing on each rooms and structure, a plane according to the times, and to execute extension with a lease in a direction too was able to be seen, and Confucianism a little culture very remained in construction, and a memorial service space, a closet were able to be seen. Also, this local high house had a lot of regions composed of a relative and was with doing in the village that did to these house several houses.

키워드 : 마루, 초석, 곁집, 독립성, 3세대 주거평면, 인축 동거형

keywords : Veranda, A cornerstone, A house with several wings, Independent anger, 3 households of dwelling planes, Man and animal cohabitation older brother

## 1. 서론

본 연구는 강릉에서 속초간 새로이 신설되는 고속도로 주변의 지표조사중 민가에 관한 것을 간추려 연구한 것이다. 본 노선은 산간지역을 연결하고 있어 조사에 따른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며 주로 전통가옥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었다.

그중 민가는 전형적인 강원도 곁집 흔들중심형태에 마루가 도입된 것과 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누어졌다. 시대에 따라 각방들과 구조, 평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또한 횡방향으로 증축을 실시하는 형태도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2002년 9월~2003년 1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원형복원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아울러 현재 상태도 함께 조사하였다. 방들의 사용과 기능에 대한 것은 현 거주자, 혹

\* 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은 이웃에서 집안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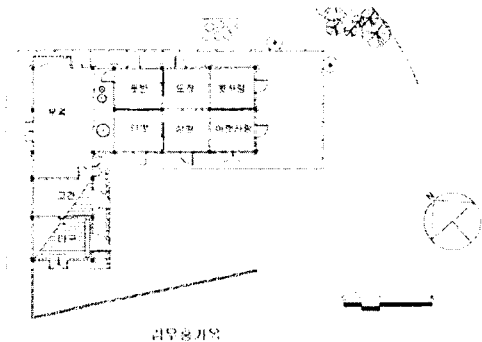
## 2. 본 론

조사대상 건축물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들 중 대표적인 가옥에 관하여 평면형태와 각 실의 배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대표가옥들에 대한 배치평면도와 조사시에 나타나는 현황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1) 김무홍(60세)가옥 (주소 : 양양군 후포메리 42번지)

현 가옥주의 조부때에 건축되었으며 (80년전) 처음 초가였으나 새마을운동때 슬레이트로 개량하였다. ㄱ자 겹집 형태로 부엌에서 고간과 마루가 돌출되어 있다. 보통 마룟간이 직접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평면 구조이나 점차 근대로 내려오면서 부엌과 마룟간사이에 고간이 들어서 가축을 멀리하고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간과 마룟간 상부에는 계절에 따라 불필요하고 항상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 생활용구 등을 넣어 두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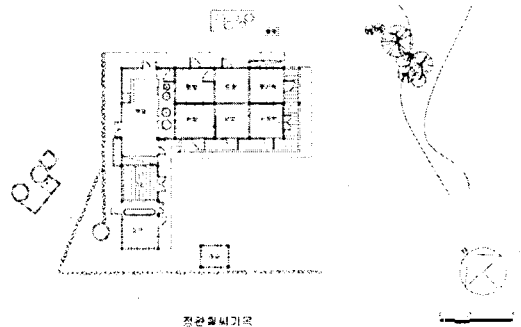
본체는 안방+뒷방, 상방+도장, 아랫사랑+윗사랑으로 평면구성이 되며, 2세대(부부), 3세대(자식,손자), 1세대(조부)로 기거하여 민간에서의 유교법식과 가족생활의 원만함을 돕고 있다. 실제 이 가옥에서 3세대 12식구가 살았으며 함께 대가족을 구성하여 의,식,주를 영위하였다. 자연석 초석에 15cm기둥을 235cm 높이로 세우고 12cm의 납도리를 얹고 지붕은 5량가 구조되어 있다.



김무홍가옥

2) 정완철 가옥(주소 : 양양군 후포메리 42번지) 김무홍 가옥과 비슷한 시기에 (80년전으로 추정) 건립되어 평면 형태에서도 마룟간과 본채 부엌사이에 고간을 두는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본 가옥은 농사철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원래 가족 7-8명이 상방에는 아들부부, 도장은 시어머니, 사랑방 측면에 높이 45cm의 장마루형태 툇마루를 두르고 있고 집의 전면에 판벽의 창고가 (145cm×190cm)있다.

기단의 높이는 35cm, 기둥의 크기는 14cm, 높이가 225cm이고 함석과 시멘트 와가의 팔자지붕 형태를 하고 있다. 사랑방 측면은 두 짝 여닫이 세살창호이고 뒷사랑의 벽쪽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벽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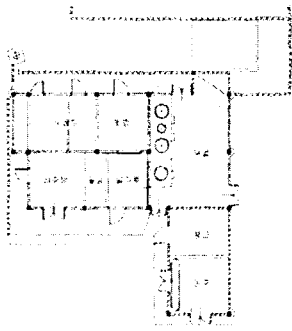


정완철가옥

### 3) 김진우가옥 (주소 : 양양군 현남면 장리)

도로변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진우(86세)씨까지 6대째 살아오고 있는 가옥으로 못을 사용하지 않았고 재목을 자귀로 다듬어서 만들었다. 기단은40cm+40cm 두단으로 높은 편이며 초석은 자연석이다. 이 부엌에 이어 마루가 있으나 창고가 새로 만들어져 부엌과 마루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전면방은 사랑방과 골방, 마루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뒷열의 도장방과 뒷방사이에 작은방이 하나도 있었다. 골방에는 자식들이 잠을 자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다한다. 좁은 가옥에 많은 식구들이 거주하기 위하여 작은 방들이 만들어지며 집의 건축도 그들 스스로 해결하였다. 기둥의 크기는 170m각이며 높이는 24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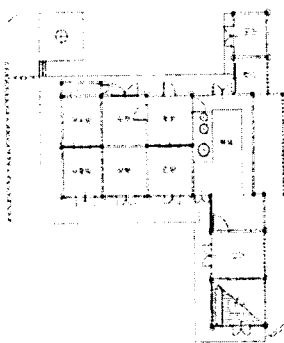
김진우가옥



4) 김창옥가옥 (주소 : 양양군 현남면 두리 85 번지)

이 지역에 있어 나타나는 건축평면은 문화재로 지정된 김택준 가옥과 유사하게 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ㄱ자가 아닌 ㄴ자형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독특하게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써 특징적 요소를 평면에 나타내고 있다. 즉 뒷마당쪽으로 고간들이 돌출하여 뒷마당은 여성들과 가내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고간과 마구는 근년 새로이 증축하였으며 원래 고간이 없이 마구간이 부엌(정지)에 이어져 있었다. 굴도리(Ø17cm)에 장혀도리(15cm)가 있으며 기둥은 15cm각 기둥이고 높이는 225cm 전면 창호는 정자살+세살문의 겹창호이다. 현재 가옥에서 4대동안 살아오고 있으며 120여년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창옥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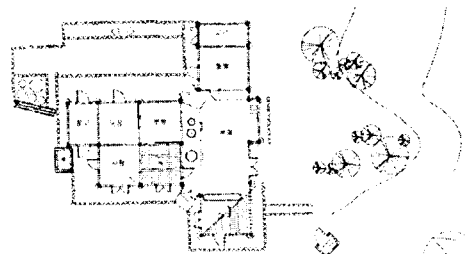


5) 김진호가옥(주소 : 양양군 현남면 두리 1번)

마을에서 내뻗집으로 알려지고 6대째 살아오고 있으며 (김규승82세, 증인)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안방자리가 원래는 우물마루의 마루방이었고 부엌에는 술이 세 개였으나 지금은 한개만 있다. 부엌의 뒤쪽으로는 뒷방과 고간이 있고 전면으로는 마굿간이 각각 돌출하여 ㄴ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도장의 측면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는 작은 방이 있고 사랑방 측면, 창고앞으로 흙기단 연결되어 있다. 뒷마당의 고간 앞에 우물이 있고 사랑방측면에 굴뚝이 있다.

기단은 70cm로 비교적 높고 자연석 초석에 17cm각기둥을 높이 220cm로 세우고 17+15cm의 도리를 걸치고 있다.

본 가옥과 함께 김창옥가옥도 문화재로 지정된 김택준 가옥과 같은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ㄴ자형의 평면 형태를 이루고 있음은 이 지역 목수 혹은 주거문화의 특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진호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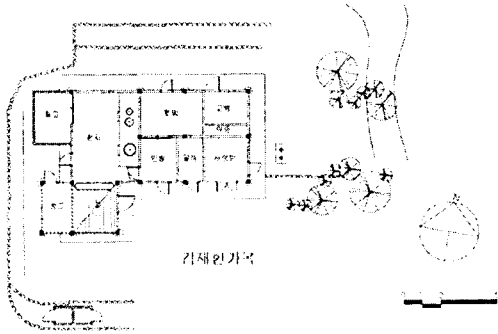


6) 김재환가옥 (주소 : 양양군 현북면 4반 31 번지)

하조대에 있으며 전형적으로 영동지방과 양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면 유형이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산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곳에 집터를 잡았다. 생업을 농업과 어업을 함께 하였으며 또한 가옥주인 김재환(75cm)씨의 조부는 사랑방에 약장을 만들어 두고 약방을 하였다 한다. 현재의 마구 옆창고는 20년전 새로이 소여물 창고로 만들었으며 뒷방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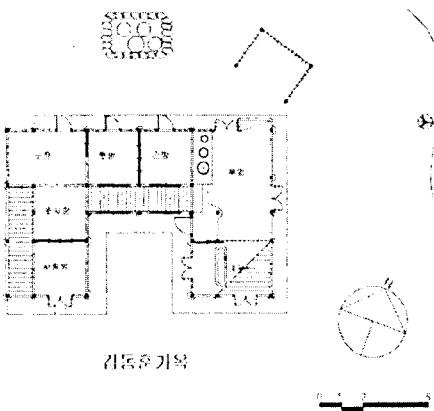
른쪽으로는 방+공방+곳간(뒤지)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기둥은 19cm각 이며 높이는 225cm이고 슬레이트 지붕이다.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자식들이 잠을자는 골방이 있었으나 생활의 불편에 의해 안방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7) 김동훈가옥 (주소 : 양양군 강현면 적은리 72번지)

현 가옥주의 부친이 당시 대목수이며 이웃의 효자각 등을 지었으며 본 가옥도 직접 건축하였다. 대지의 위치는 산등성이를 깎아서 조금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ㄷ자 평면의 우측 끝부분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안방과 뒷방이 있는 중심을 대청에 두고 좌, 우로 부엌과 마굿간, 뒷사랑, 아랫사랑을 배치하고 안채와 사랑채 역할을 하는 두 곳에 각각 전면과 측면에 뒷간 마루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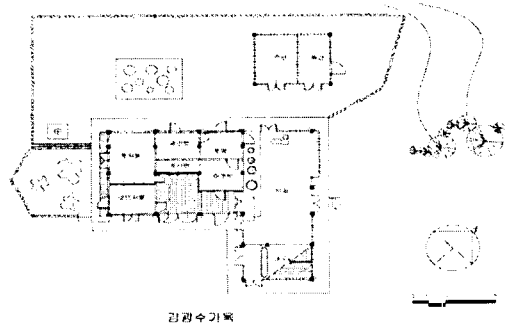


비교적 근대에 건축되어 사랑과 안방의 시선과 동선을 마주치지 않게 마루를 배치하고 사랑방의 안마당방향 벽체에는 출입 창호를 만들지 않았다. 즉 두 기능이 서로 겹쳐져서 상호간섭되어지는 것을 피하여 독립성을 두고 있다. 지붕은 슬레이트지붕으로 높이는 동일하게 연속되어지며 기둥은 14cm각 높이는 240cm이다.

8) 김광수 가옥 (주소 : 양양읍 강현면 상복리 2번)

현 가옥주가 5대에 걸쳐서 살아온 집이며 전형적인 ㄱ자 겹집의 영동지방 민가이다. 본채와 마굿간은 이어져 있지 않고, 본채 밑에서 달아내어 비교적 오래된 건축연대를 말해 주고 있다. 본채에 마루방이 들어가 있으며 뒷방에서 마루방을 향하여 조그만 아랫방을 만들어 돌출하고 있다. 사잇방은 제사방의 용도로도 사용되며 사랑방은 뒷사랑, 아랫사랑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잇방은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본가옥에서는 신혼부부방으로 활용되며 다음 동생이 결혼하면 형은 분가를 하고 동생이 이어서 이방에서 신혼생활을 하였다. 부엌과 마굿간이 이어지는 부분에 원래 곡식을 저장하고 곡간이 있었으나 지금은 부엌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다.

뒷마당에는 곳간과 고방으로 사용하는 2칸의 별채의 장독대가 있으며 마굿간 우측에는 남·녀로 구분된 측간이 있다. 한식기와 지붕이며 자연석 주초석에 기둥은 비교적 굵은 20cm각으로 높이는 235cm정도이며 겹도리 집이다. 마루



전면은 네썸분합문과 외여단이문이 달려있고 부엌을 향하여서도 두썸여단이문이 있다. 산간마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면구성과 짜임새는 한지방 아래에서 각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 3. 종합 고찰

1) 농촌에서 부엌공간과 마굿간은 서로 인접하여 유기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농경생활에서 가축은 힘든 경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써 가장 기능적인 평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인축 동거형으로써 소의 여물, 혹한에 따른 보살핌을 위하여 가까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80~100년전부터 이지역에서는 부엌과 마굿간 사이에 수납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고간이 발생하여 가족들이 생활하는 부엌과 가축이 살아가는 마굿간을 분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면에 통로를 두어 기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기능을 살리면서 위생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다. (김무홍가옥)

2) 유교의 엄격함은 서민주거에도 적용되어 3세대 동거평면의 경우 영동지방의 온돌중심 곁집의 중앙 상방+도장에 자식(손자)들이 기거하고 양쪽으로 1세대와 2세대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강원도 서민주거의 3세대 평면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출입 동선에서도 사랑방과 부엌 방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강릉지방에 오게 되면 더욱 엄격하여져 서민주거에도 내외담이 나타나 사랑방과 안방을 구분하고 있다.

3) 양양의 일부지방(현남면)에서는 ㄱ자형 평면이 200여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독특한 배치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평면 형태는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으로써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할 때 ㄱ자 배치에서 뒷마당 쪽으로 고간이 이어져 나가면서 ㄱ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뒷마당의 공간은 보다 더 폐쇄적으로 갖추게 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발전하여 김택준 가옥과 같은 ㄷ자 평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

여서는 현재로써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지역적으로 한정되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시대 목수의 독창성 혹은 어느 가문(경주 김씨)을 중심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진우 가옥, 김창욱 가옥, 김진호 가옥)

4) 양양 현북면을 중심으로 윗쪽으로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기둥간을 작게 구분하여 골방(사잇방)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가옥은 이곳을 확장하여 안방을 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 잠을 자거나 신혼 생활을 위하여 작은 골방이 있었다. 많은 가족이 한집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방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고 산간지방에서 '간, 혹은' 채의 증축은 경제적으로나 한정된 대지의 집터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작은 실들을 만들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즉, 대가족이 살아가는 산촌의 생활에서는 독립된 작은 방들이 필요하였을 것이다.(김재환 가옥, 김광수 가옥)

5) 유교의 영향이 가족관계에서 점차로 감소하면서 세대간 각각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다. 안방을 중심으로 좌·우에 사랑방과 부엌, 마굿간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방의 출입은 마당을 통하여서 하고 사랑방은 바깥마당에서만 출입을 하여 각각 동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방 뒤쪽으로는 창호가 전혀 없는 벽면처리를 하여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휴식, 단란을 위한 마루공간도 각각 갖추고 있다. 즉 근대에 오면서 세대간에 상호 독립성과 서로의 생활에 간섭을 하고 있지 않는 평면을 만들고 있다. (김동훈 가옥)

### 4. 맺음말

산간지방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은 각 지역의 독특한 건축 평면형식이 아직 남아 있는 전통민가를 지나고 있었다. 각각에 나타난 민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부엌과 마굿간 사이에 고간이 발생하여 인

축동거형의 평면형식에서 기능과 함께 위생적인 모습의 형태로 변화되어 부엌에서 멀리 이어진 마룻간이 만들어졌다.

2) 삼세대 주거평면이 강원도 영동지방 곁집에서는 자식(손자)을 중심으로 각각 좌·우에 세대간 격리되게 방들이 위치하고 있다.

3) 양양 일부지방(현남면)에서는 ㄱ자에서 뒤쪽에 고간이 한칸 덧붙어서 ㄴ자형의 독특한 평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목수 혹은 어느 종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4) 골방 혹은 사잇방이 영동지방 곁집평면에 사랑방과 안방사이에 있으며 이것은 잠자기, 혹은 신혼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5) 가까운 근년에는 안방과 사랑방은 출입동

선, 마루, 공간 등을 각각의 세대가 갖게 되면서 서로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써 좀 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폭넓고 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연문화사, 1994
2.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연문화사, 1997
3. 강원도의 전통건축, 관동대 출판부, 2000/2
4. 한국건축문화자산 (강원편) 저서. 문화홍보부. 1999/10